

종합

혹한 속 민주당 장외투쟁 씩씩한 마무리

예산안 무효화 안보정국에 밀리고... 대통령 사과도 어렵없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맞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24일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를 방문, '방역무능론'을 제기하며 대외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방문을 끝으로 지방선거 투쟁을 마치고 다음주 초 수도권 집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투쟁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처럼 지난 14일 시작한 전국 순회 투쟁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애초 목표로 내걸었던 예산안 무효화 및 대통령 사과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당내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의 예산안·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겨울철 한파와 여론의 안보 정국 조성에 따라 애초 기대했던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장외투쟁을 시작할 때 이 같은 결과를 대부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리더십 상처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힘없는 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자괴감이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일고 있다.

민주당은 남은 수도권 규탄대회를 소화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아편 차원의 공동집회를 벌이는 동시에 시·군·구 단위의 민생현장파견 예산 배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능단체 등을 찾는 방식으로 2차 대외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강원도를 방문한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정세균·박주선 최



민주당은 성탄 한파가 몰아친 24일 강원 원주시 일산동 강원감영 앞 천막에서 손학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원주시청에 들어 구제역 피해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4대강에 정력을 소모하는 바람에 꼭 필요한데 쓸 것을 낭비했다"고 비판했고, 정세균 최고위원도 "올해만 구제역 발생이 3번째"라며 "초동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기습공격을 할 때 대반격을

가해야 하지만, 지금은 구제역 대반격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접경지역인 강원도를 통한 남북 경제교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의 '안보·경제 무능론'도 같이 제기했다.

손 대표는 원주 강원감영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긴장과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며 "중국

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좀 더 깊이 있고 책임 있는 입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보정국을 공안통치로 연결하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일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도의회 첫 성적표 기대 이하라니

시·도의회 첫 성적표 기대 이하라니

민선 5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23일 올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대다수가 초선인 탓에 의욕적인 활동을 했지만, 시·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잘못 쓰이거나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부당한 관리 하점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제1차월 묘지 위탁업체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편법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다 결국 집행부의 거부로 무산돼 최대의 오점을 남겼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견제해야 할 집행부와 '뒷거래'까지 했더니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의원들이 집행부 예산·성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정작 '이물질' 통과시키고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데 앞장서 도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결과적으로 시·도의회 첫 성적표는 시·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부실했다는 게 중론이다. 의욕도 좋지만 성과가 '별로'라는 얘기가. 중요한 것은 새롭게 각오를 다진 초심(初心)이 변치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민선 4기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로 일가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의원들이 40% 이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이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잇단 지역 '성장동력' 차질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전남지역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12 여수박람회와 F1 등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광주 클린디젤차 부품산업 역시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283억 원, 지방비 366억 원, 민자 222억 원 등 총 1871억 원을 들여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비 100억 원, 지방비 85억 원, 민자 65억 원 등 2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의욕은 첫 발도 던지기 전에 벽에 부딪혔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국비 40억 원만 확보됐을 뿐 지방비나 민자는 단 한푼도 마련하지 못해 진곡산단 내 디젤전문기술센터 부지 매입 등 주요 사업을 연기

해야 할 실정이다. 최근 지역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각종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현 정부의 지역 편중 정책 탓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다.

광주시나 전남도가 무리하게 백화점식 사업을 벌인 것은 아닌지, 충분한 사전 검토나 타당성 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의 잘못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한 과정에 지역 정치권과의 사전 의견 조율은 물론 중앙정부와 여당에 대한 설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현안사업의 차질을 연재까지 못해 진곡산단 내 디젤전문기술센터 부지 매입 등 주요 사업을 연기

민주, 안상수 윤리위 제소키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을 '자연산'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오는 2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24일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들은 전남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에게 대표직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수용될 가능성이 없어 윤리위 제소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전남도는 내년에 시행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도 신청 심의소와 시군, 여성단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내용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능력 개발, 성폭력·성매매 방지, 여성복지 증진 등이며 여성발전기금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공모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분야와 도역시책 추진분야인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녹색생활실천사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전남도 홈페이지나 녹색전남여성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 전남도 여성가족과로 접수하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591억어치 구매계약

내년 학교급식 34만명 공급...무상급식지원 수요 늘 듯

전남도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내 농민들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4일 오후 도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시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과 계약재배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총 사업비는

591억원으로 도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등 2471곳 34만3000명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 또 읍면 지역 초·중학교에 최초로 도입하는 무상급식 지원은 8만1672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하고 생산농가들

을 대상으로 시·품목별로 학교에서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인근 시·군간 정보교류를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004년 5만6000t에서 2009년 말 127만5000t으로 크게 증가해 학교급식 식재료 전량을 도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판로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25억5000만원 확보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10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거둬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25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8개 분야 38개 시책 148개 지

표를 설정, On-Line 공개평가 시스템과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합동평가위원회가 직접 평가·발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8개 분야 중 사회복지,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광주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한 흥남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관은 정부포상 근정포장, 서경식 방재관리과 공업주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또 황성권 기후변화대응과 행정사무관, 양혜숙 건축주택과 행정주사, 유경수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행정주사, 조은경 여성청소년가정폭력관실 사회복지주사보, 내병우 시민소통과 행정주사보 등 5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가 이번엔 받은 특별교부세는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사용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순천시, 정원박람회조직위 법인 설립 강행

순천시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법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출연금 예산을 삭감했지만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서 더 이상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순천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발기인대회를 갖고 노관규 순천시장, 송영수 순천광양상회회장, 서현무 변호사, 김연자 순천YWCA이사장, 양홍모 한국조경학회회장, 장승태 순천대학교수 등 11인을 발기인으로 선임했다.

발기인들은 취지문을 통해 "순천만의 생태보전과 뷰티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정원박람회를 온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조직위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조직위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은 물론,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 등을 위한 광고, 입장권, 기념품 등 각종 수익사업도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게 돼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 박람회조직위 설립을 위한 조례 마련에 이어 조직위 법인 설립 출연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근 시의회가 이를 삭감하자 시는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조직위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발기인대회를 강행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인대회에 이어 내년 1월 중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위 파견 공무원 별도 정원 확보 등 조직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완벽하게 갖춘 뒤 내년 추경에서 출연금 예산을 의결해 주도록 의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北, 내년 3차 핵실험 가능”

외안研 '국제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내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력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공격적 대외 행태를 볼 때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외안연은 이날 발간한 '국제정세 2011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단기간에 미·북 대화 또는 6자회담이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외안연은 이어 "2011년은 6자회담 관련국이 북핵 문제의 단기간에 해결보다는 상황관

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인 2011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 일부에서 제기될 것"이나 북한의 반복적 도발로 인해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외안연은 이와함께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가 내년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뒤 "대외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해외직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대미 직접 대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서청원·배기선 등 829명 '성탄절 특사'

광주, 전남·북 94명 포함

법무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광주, 전남·북을 비롯한 전국의 교정시설 수형자 829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공천현금 사건으로 기소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수회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포함됐다.

광주지방교정청은 광주교도소와 군산

교도소 등 8개 교도소의 모범수형자 9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번 가석방은 부정수표법,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도소별로는 광주교도소 23명을 비롯, ▲순천교도소 10명 ▲목포교도소 13명 ▲장흥교도소 3명 ▲해남교도소 3명 ▲전주교도소 13명 ▲군산교도소 15명 ▲제주교도소 14명 등이다.

/최희경기자 choic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홍보국 2200-541	
정경부 2200-612		광고매체부 2200-621	
(대표 FAX 222-4918)		광고미케팅국 227-9600	
사건부 2200-693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회부 2200-61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26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그러고 보니 짝하긴 하다